

# 느슨해진 방역 의식... “줄곧 불안했는데 터질게 터졌다”

## 코로나 집단감염 광주 콜센터 가보니

24일 정오께 광주시 서구 차평동 광주도시공사 사옥. 점심시간이 시작됐지만 건물을 나서는 직장인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건물 내 입점기업만 18개에 이르고 근무 직원만 1500여명에 달하는 터라 점심시간이면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로 북적댄다는 게 일대 상인들 설명이다.

하지만 건물 4층에 위치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이나 발생한 탓인지 어느 때보다 한산한 분위기였다.

건물 내 입점 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콜센터 발 집단감염 때부터 줄곧 불안했다. 콜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는 하지만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실재없이 말을 해야 하는 일이지 않나”며 “현재 출근 인원을 최소한으로 한 상태라 업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향후 본사에 콜센터가 있는 건물을 피해 입점하는 것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콜센터는 광주에만 69개나 들어서 있는 상태로, 대규모 인원이 3말(밀집·밀폐·밀접) 공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지난해부터 방역 당국의 집중적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

감염 확산세 때문인지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위해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도

작년 집단감염 겪고도 긴장 풀어져

1500여명 근무 북적였던 빌딩

점심시간 이동 확 줄어들며 한산

“백신 접종에 곧 끝나나 했는데”

숨통 기대하던 인근 상인들 허탈

광주에만 콜센터 69곳 달해

치밀한 방역대책 마련 시급

많았다.

코로나 장기화에도, 완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건물 내 입점 업체 직원은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 보면 식판에 음식을 담거나 식사중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이용객들이 많았다”며 “식당 운영자에게 얘기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물 이용자는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대화

하고 한 데 모여서 담배피는 경우도 많이 감염되면 퍼져나가는 건 순식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터질 게 터졌다”고 말했다.

주변 상권에도 충격파가 미쳤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만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던 허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물 인근 설렁탕 전문점 운영자는 “확진자가 30명이 넘어간 줄은 몰랐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이제 곧 끝나나 했는데, 허탈하다”고 푸념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기서 확진자만 서른 명 넘게 나왔더라...”며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앞을 지나치는 등 일대 거리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광주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18일 4명→19일 5명→20일 6명→21일 5명→22일 7명)하다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단감염은 백신 접종 발표 등으로 비교적 느슨해진 시민들의 방역의식 한 몫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면밀하고 치밀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보험사 콜센터에서 24일 오후 4시 기준 32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가 입주한 광주 서구 빛고을고객센터 입구.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당했다”

## 전남 지역 축구부 후배 2명 폭로 에이전트 “사실 무근...법적 대응”

국가대표 출신 유명 프로축구 선수가 전남지역에서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력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가해자로 거론된 선수 측은 폭로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축구부 감독도 “축구부원들과 매일 속삭이며 지도했는데 이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현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바 있는 B씨는 현재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건 당시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성폭력했다고 주장

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에, C씨와 D씨는 번갈아 가며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어려서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은퇴했고,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했다.

이들은 A선수와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A선수와 B씨가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나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선수 에이전트사는 “(A선수) 본인에게 확인

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선수 소속 구단도 “A선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구단은 여러 방향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해당 초등학교 감독은 2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가해자로 거론된 선수와 통화했는데,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축구부 학생들이 잠자는 옆 방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지도했다. 학교가 집이랄 정도로 학생들과 붙어지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피해 학생들이 체구가 왜소했다는 데 오히려 가해 선수보다 체구가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피해 학생들 모두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 ‘10만원에 교사 분양’ 패륜성 게시물 논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한국교총 “여과 없는 유포...개탄”

‘10만원에 교사를 분양합니다.’

수천만명의 회원이 이용중인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잇따라 패륜성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당근마켓’에는 교사를 분양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쟁민이(초등학생 이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이라고 쓰며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날라졌고 교사 분양 글을 올린 당근마켓 이용자 계정은 현재 정적위반 사유로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

총)은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면서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대책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장애인 팝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아이 팔아요’라며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10대 미성년자들이 장난성으로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고 당근마켓측은 사전에 걸러내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미혼모가 ‘36주가 아닌 태어난 지 사흘 밖에 안된 신생아’를 입양한다고 올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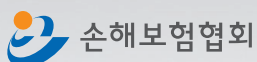
##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고교생 2명 실형 선고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으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동승한 B(18)군에 대해서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1일 밤 11시 4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화순군 중앙로 남산공원 입구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여·2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